

# 끝내 결론 못낸 '공수처장 후보'... 與 "법 개정 불가피"

### 3차례 표결에도 6명 등의 못언어...추천위 활동 사실상 종료 민주 "더 미룰 명분 없어"...국민의힘 "비토권, 여당이 보장"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3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못한다면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최후통첩'을 했지만, 최종 추천 시한인 이날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이어 갔으나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추천

위는 "세 차례 표결을 거쳤으나 7명 중 6명의 동의 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를 계속하자 는 야당 측 추천위원의 제안도 부결됨에 따라 추천 위 활동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 앞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 처장 임명을 위해 부여한 비토권을 이용해 후보 추 천을 방해한다면 법 개정안 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 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서 야당이 공수처 후보 추천의 조건으로 청와대 특 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출범을 지연 시키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GTX가 나왔는데 전차를 다시 하자는 이야기와 같다"며 "(고위공직자를 감시할) 공수처라는 좋은 게 나왔는데 굳이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더 미룰 수 있는 명분도 없고 시간도 없다"며 "꼭 오늘까지 시간을 맞춰야 하느냐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염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감찰관 임명 조건을 두고 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할 때 같이 하면 된다"며 "하나의 조건이 해소되면 다른 조건을 붙이는 도돌이표식 조건 붙이기는 두 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의원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 련)도 이날 "공수처 연내 설치에 앞장서겠다"고 밝 혔다. 민평련 대표인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42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 에 담긴 간절함에 보답하기 위해 범여권 180석의 강력한 힘을 중단의 개혁에 쏟아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몽니 와 방해로 일관한다"며 "공수처법 원안이 불가능하 다면 머뭇거리지 않고 개정안을 대안으로 올레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에 대해 "그런 강박증이 어딴냐"라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법을 만들 때, 공수처가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기관이라 고 (야당이 반대할) 했을 때, 야당의 비토권이 보장 되면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얼마나 자기들이 강조했 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이) 저렇게 나서 서 설치하는 이유가 결국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를 비위를 수사할 검찰을 압박하려고 저러는 것"이라며 "자격도 중립성도 검증 안 된 후 보를 무리해서 (추천)하라는 이유를 국민들이 알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공수처·공정경제3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민주당 "개혁 입법 처리"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 소속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관관에서 공수처,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낙연 특보단' 본격 가동

이개호 의원 등 현역 16명 등 24명...이낙연 "소통 사각지대 메워달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자문 역할을 담당할 특별보좌단(특보단)이 18일 출범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개호 의원 등 24명을 특보단에 임명했다. 단장인 이 의원을 비롯 해 설훈(5선), 박완주·전혜숙(이상 3선), 김철민·김한정·서삼석·송갑석·유동수(이상 재선), 강준현·김주영·박영순·신영대·이원택·이장삼·이형석(이 상 초선) 등 현역 의원 16명이 특보단에 이름을 올 렸다. 원외에서는 박성현 부산 동래구 위원장, 윤준 호 부산 해운대를 위원장, 심규명 울산 남구갑 위원 장, 문상모 경남 거제시 위원장, 조기석 전 대구시 당 위원장, 이정근 서울 서초구 위원장 등 열세 지 역의 지역위원장이 주로 참여했다. 청년 몫으로 신 정현 경기도 의원이 포함됐다. 심기준 전 의원도 함 께한다.

이 대표가 취임 후 주요 당직 인선으로 '이낙연

계' 기반을 마련한 상황에서 특보단이 외연 확대 역 할을 자연스레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가 늘 소통을 위해 노력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라며 "그것을 찾아 메워주는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역대 어느 대표 시절에도 특 보 는 있었다. 저만 특별히 특보를 두는 것은 아니 다"라며 "여러분은 당 대표인 저의 특보이지만, 그 보다는 민주당의 특보, 국민의 특보라는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개호 단장은 특보단 운영 계획에 대해 "월 1회 정도 정기적으로 모여 지역의 여론과 직능별 의견 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그런 의견이 당 정책에 반 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 대표가 당의 의견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유승민 "대권 재도전"

서울시장 재보선 차출론 일축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차기 대선에 재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치권에서 나 오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차출론'에는 "생각 해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 회를 열어 "저는 그동안 대선 출마 의지를 여러 차 례 밝혀왔던 사람"이라면서 "이런 노력을 공개적으 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사무실에 '희망 22'라는 이름을 붙인 것 을 두고도 "더 설명할 필요 없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대선에 나서겠다 는 의미다. 유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로 선출할 가능성에 대해서 "전임 시장의 권력형 성병때 때에 갑자기 생긴 선거"라며 "그래서 이제까지 서울 시장 출마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민형배, 학교 교육에 금융 포함 초·중 교육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산울) 국회의원은 18일 '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연이은 금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서는 금융의 주체인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상당수 주가 학교 금 융교육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 는 학교 교과내용에 금융교육 관련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



용을 정할 때, 금융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민형배 의원은 "학년별 커리큘럼 마련과 다양한 플랫폼 구축 등으로 금융 교육 접근성을 높여야 한 다"며 "금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금융의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금융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 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신정훈 '중소 경쟁력 강화' 제품 판로지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은 18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제 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광고 지원의 법적 근거 마 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 벤처기업부장은 중소기업 광고의 기획, 제작, 광고 매체 구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최근 신기술의 등장, 매 체 증가, 소비자 관심 분화 로 홍보의 중요성이 증가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 여건 등으로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 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 다. 신정훈의원은 "중소기 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 를 통해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로 나아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 김승남 "보성읍·미력면·회천면, 2025년까지 도시가스"

보성군 보성읍, 미력면, 회천면에 이르면 오는 2025년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 회의원은 18일 "2025년 보성군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총 사업비 740억 원이 투입된다"면서 "올해 11월, 설계 및 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오는 2025 년 2월부터는 총 4,988세대에 천연가스 공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올해 7월 '보성군 천연가스 보급사업' 예비타 당성 조사 결과, 중합발전이 50점 이상을 거두면 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 지난 10월 22일에는 보성군, 전남도, 한국가스공사, 전남도시가스 4



자간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천연가스를 공급 하기로 했다.

김승남 의원은 "도시가 스소외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연간 48억 원 가 량의 연료비 절감으로 해 당 지역주민의 편익이 높 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보성군에 생활 인프 라가 점차 구축되면 귀농·귀촌 권인은 물론 기업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동력이 될 것"이라 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 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1개	2,530	1,780	리솜 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산 스피러스 안면도 아일랜드 제주 퍼스픽	실버(24)방1	2,850	1,680
			3,600	2,680			골드(28)방2	3,210	1,980
한화 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전,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 (방2개)	2,480	1,680	켄싱턴 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추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21)방1	1,980	980
			3,110	1,880			스위트A(26)방2	2,120	1,280
							스위트B(31)방2	2,600	1,380
							로얄(35)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